

이상시의 시공간 형상에 관한 연구

— 「線에關한覺書1-7」을 중심으로

윤수하(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이상 시의 상대론적 시공간의 형상화 |
| 2. 상대론적 시공간이론과 조형예술 | 4. 결론 |

1. 서론

이상 시의 파격적인 구성은 당시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학기공식과 도형, 타이포그래픽 등이 적용된 시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뉘었다. 그러한 평가는 이상 사후에도 이어 졌으며 문제적 작가 또는 난해성의 시인이라는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다매체 시대인 현대에 이르러 이상 시는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고 있다.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 미래주의 등 여러 예술 사조가 선보인 시대에 산출된 이상 시는 예술 사조의 다양성만큼이나 이채로운 변형을 시도한 텍스트이다. 형태의 변형으로 인해 이상 시는 추상성과 난해성을 불러 일으켰고 시구에 대한 해석조차도 어려워 주제의식과 철학적 배경이 검토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501]

이상 시는 시구를 해석하는 데 앞서 텍스트 창작과 연결된 철학적 배경은 물론이며 당시 예술 매체의 배경이 되었던 사회 과학적 사고방식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상 시의 소재가 되었던 예술 매체의 배경이 당시의 과학적 사고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이상 시에 대한 수학, 과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이뤄졌고¹⁾ 시각 예술과 건축 등 문학과 다른 분야에서도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다.²⁾ 이상 시는 문학 뿐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를 아우른 종합 예술적 텍스트로서 다른 예술 매체의 장점을 수용한 열린 텍스트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이상은 여러 예술매체의 장점을 재창조하고 시적 소재로 삼았다. 현대에 이르러 이상의 매체 결합은 상징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문학인과 예술가들에게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 시에 적용된 매체는 조형예술과 회화, 연극, 영화 등의 예술 매체를 비롯해 과학과 수학에까지 광범위하다. 그것은 당시 상대성 이론을 비롯해 당대 물리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된 양자역학 등의 발전이 새로운 세계관과 우주관을 형성했고 예술과 철학에까지 확대되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새로운 과학사조의 발전은 기존의 뉴턴 식의 사고체계를 전환해 인간 존재에 대한 사고의 틀을 확장했다.

상대성이론을 비롯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당시 예술인들은 N차원 등 확대된 차원과 시공간 등의 소재를 응용한 예술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바우하우스의 칸딘스키, 클레, 모홀리 나기 등은 시공간이론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선보였고 이론화하여 교육했다. 바우하우스의 이론은 건축과 조형예술과 연관된 세계 여러 교육과정에 투입되었고 조선과 가까운 일본이나 이상이 다녔던 경성고공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상은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시 텍스트에 반영했으며 이상 시의 파격성은 문학과 이질적인 매체와 이론의 특성을 광범

1) 김태화, 『2분법 사고에서 3분법으로』, 『이상리뷰』1, 역락, 2001.
_____, 『수리철학으로 바라보는 이상의 춤과 이미지』, 교우사, 2002.
장석원, 『李箱詩의 과학과 多聲性—「선에관한각서」연작을 중심으로』, 『이상 리뷰』3, 역락, 2004.

2) 권영민, 『타이포그래피의 공간과 시적 상상력』, 『세계의 문학』, 민음사, 2008. 4월호
김민수, 『멀티미디어인간 이상은 이렇게 말했다』, 생각의 나무, 1999.
안상수, 『이상 시의 타이포그래피 놀이』, 『이상리뷰』4, 역락, 2005.
김용섭, 『이상 시의 건축공간화』, 『이상리뷰』1, 역락, 2001.

위하게 다루고 문학적 형상의 질료로 유입할 수 있었던 이상의 자유로운 창작 정신에서 비롯된다.

식민치하 조선예술계는 근대적 문화를 빠르게 흡수할 수 없었다. 이상 시는 단지 일본 유학생이나 제삼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서양의 전위예술이나 초현실적 예술 무대에서나 통할 법한 예술 기법을 응용했다. 당시 유일한 표현 수단이었던 신문에 게재된 만평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매체의 한계가 이상 시의 우수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산출했다.

이 연구는 이상이 당대의 조형 예술 및 건축 분야에서 응용되었던 시공간과 우주에 대한 철학적 원리를 시에 적용한 것으로 보고 점, 선, 면을 비롯한 물질에 대한 사고와 이상 시의 형상의 연관성과 주제 의식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상대론적 시공간이론과 조형예술

2.1. 상대론적 시공간이론의 철학적 배경

시공간의 실재성은 그것에 대한 인식과 연관된다. 인식하는 실체가 없으면 시공간은 의미가 없다. 그에 대한 인식론적인 관점은 물리학이나 수학 뿐 아니라 철학까지 연결된다. 인식은 현상을 감지하고 시공간도 그와 마찬가지로. 칸트를 비롯해 시공간의 인식에 대해 연구한 철학자들은 명확한 객관성을 내포한 시공간 이론을 확립하기 위해 물리학이나 수학의 객관적인 성과를 검토하게 된다. 유클리드 이론을 넘어 비유클리드 이론이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기반을 이루기까지 수학과 물리학, 철학 분야에서는 존재와 존재에 대한 인식, 시공간의 인식에 대해 여러 입장이 나온다.

소광섭은³⁾ 시공간에 대해 대표적인 철학적 관점을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뉴턴, 둘째는 데카르트, 셋째는 라이프니츠, 넷째는 버클리의 관점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 논문에서는 주목하는 이론은 “시공간은 인간 주관으로 이루어진 직감의 형식이다.”는 칸트의 관점이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을 통

3) 소광섭,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고찰』, 과학사상, 1994. 8~12면.

해 공간을 외적 감각, 시간을 내적 감각으로 표현했다.⁴⁾

칸트에 따르면 공간 표상은 존재하는 관계, 또 시간 표상은 계기성의 관계를 포함한다. 인간은 물자체를 인식할 수 없으며 시공간은 절대적 현존이 아닌 주관의 직관방식에 의한 것이므로 인간이 시공간에 있는 것은 현상이 아닌 가상이다.⁵⁾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한 가상 속에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인간은 실재하는 것을 의식하고 의식을 위해서는 감각이 필요하다. 감각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공간이 인식되는 것은 감각의 밀도에 인한 것으로 정의된다.

2.2. 칸트 시공간철학의 논리

칸트의 시공간에 대한 관점은 인식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칸트는 인간이 자연을 인식하는 것은 물(物)자체가 아니고 감각기관을 통해 형성되는 현상일 뿐이라고 했다. 대상에 관한 모든 지식과 법칙은 오직 이 현상에 관한 것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현상의 배후에 가려져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미지의 존재가 물자체이다. 물자체에 관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다만 인간의 감각 기관이 촉발해 만들어낸 현상에 대한 대상적 지식이 성립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無)라기보다 주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는 절대적인 객관 세계가 아니다. 이 세계는 우리 인간에게 인식된 그 자체이다. 인간 스스로 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한 현상의 세계이다. 인간은 결코 세계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⁶⁾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규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인식에 의해 파악된 자아는 현상적인 '나'이다. 칸트의 관점에서 현상적인 나는 본래의 나가 아니다. 현상적으로 인식되는 나는 스스로가 개념적으로 정립하고 분석한 과거의 나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아는 바로 스스로가 인식할 수 없는 초월적 자아이다.

즉 시공간 표상의 주관성은 근원뿐만 아니라 기능에도 적용된다. 시공간은

4) 서정욱,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읽기』, 세창미디어, 2012. 38면.

5) 서정욱, 위의 책, 53면.

6) Immanuel Kant,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05. 192면.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 만든 틀이라는 논리다. 인간의 뇌에는 시공간이라는 형식이 있고 그것을 통해 외부세계를 보고 이해한다는 것으로서 뇌의 필터와 같은 이치다.⁷⁾

칸트의 초월적 자아의 개념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인간은 감각 경험의 세계에서 현상적이지 동시에 초월적인 존재로 살아간다.⁸⁾ 현상적 자아는 인식되는 자아이고 초월적 자아는 인식할 수 없는 자아로 초월적 자아가 인간 본래의 자아이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건 간에 개개인이 존엄한 초월적 존재로서 절대적 인격 가치를 지닌다.

시공간 이론에 있어서도 칸트의 논리는 시공간이 실제로 존재하기 보다는 인간이 느끼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감각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하지 못하며 모든 대상이 무(無)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감각이 만들어 내는 존재 방식은 만물의 존재 여부와 일치한다.

뉴턴이나 데카르트, 라이프니치가 물체가 실재한다고 전제하고 이에 관련된 시공간의 본성을 규정하려는 것과 달리 칸트는 인간은 물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물체를 포함한 어떠한 대상이든 그 자체가 실존하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음을 뜻한다. 다만 인간의 뇌가 인식하는 대상의 정보에 따라 시공간 또는 물자체의 존재 여부가 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인간이 시공간을 감지하는데 쓰이는 전자기 파동이 시공간을 결정하는 체제이고 그 파동을 이루는 빛의 운동과 광자의 감각기능이 주요 요소가 된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 기능인 직감과 지성을 통해 현상에 관한 지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대상이 주관의 감각기관을 통해 촉발하는 현상이 그것을 이루게 된다고 보았다. 감각은 개별적이며 오감에서 발생한다. 감성을 통해 얻어지고 오성에 의해 정리가 되어 대상을 파악하게 되는 주관의 통일적인 파악작용을 통각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나 영혼, 세계의 무한성, 신의 존재 등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것은 인간 오성이 파악할 수 없으나 인간의 사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7) 다케우치 가오루, 『시간론』, 전나무 숲, 2011. 66면.

8) Immanuel Kant, 위의 책, 145면.

칸트의 상대론적 시공간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공통점이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 논의된 ‘대상’은 칸트의 ‘현상’과 의미하는 바가 같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경우에도 선천적 시공간 표상에 대한 부분이 있으며 칸트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현상에 대한 실재성과 물자체의 관념성을 갖는다.⁹⁾

3. 이상 시의 상대론적 시공간의 형상화

이상 시의 조형 형상은 삽화(Illustration)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언어는 실재하지 않는 것을 환기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삽화의 경우는 현전화해 내는 위력이 있다.¹⁰⁾ 한편 언어적 묘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특질을 갖는다. 이상 시의 삽화는 원자나 우주의 운동 등 실제적인 묘사가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에너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삽화에 대한 설명이 언어적 묘사보다는 물리학적 이론을 대입한 설명이나 수학적 공식이 운용되었다. 그것은 조형예술이 자연과 만물이 운행하는 이치와 초자연적인 시공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에너지의 표현을 수학적 상상력으로 표현해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문자나 숫자 또는 점 등은 원래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대상성을 갖게 된다. 그러한 매체교체의 시학적 기능은 문자와 숫자를 ‘추상의 형식요소’로 취급하고 현실에 대한 묘사보다는 작가 스스로 대상에 대한 실재성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쓰는 조형예술의 기법에서 출발한다.¹¹⁾

『線에關한覺書1-7』을 비롯한 조형적 형상을 응용한 이상의 시들이 시적인 형질을 갖는 근거는 시적인 주제의식과 철학적인 성찰에 있다. 이상 시는 인간 소멸에 대해 성찰하고 있으며 자아의 근원에 의문을 갖고 시공간의 주관적인 내감의 포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의 시 『線에觀한覺書1-7』은 시공간에 대한 성찰을 언어적 묘사와 형상을 이용해 형상화한 시이다.

이상 시에서 인간의 생존은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사고

9)곽유희, 『칸트 입장에서 본 상대론적 시공간』, 『대동철학』 제2집, 8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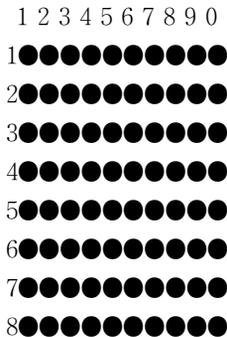
10) J. Hillis Miller, *ILLUSTR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66면.

11) 고위공, 『복합예술텍스트로서의 구체시』, 『동서문화연구』10호, 2002, 115면.

가 지배적이며 상대성이론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광선에 대한 이론과 실험을 시에 인용했다. 또 인간의 생사, 무한성과 신에 대한 인식 또한 작가의 방식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묘사방식을 창조해 운용함에 따라 기존의 추상시 또는 초현실적인 시들과는 전혀 다른 추상적 세계를 확보했다.

3.1. 감각기관의 시공간 인식

『線에關한覺書1』의 조형 형상은 사각의 격자로 이루어졌으며 점과 숫자로 채워져 있다. 『線에關한覺書1』의 형상은 그리드¹²⁾기법으로 제작되었다. 그리드는 수평과 수직의 교차선으로 이루어진 조형 구조이다. 기하학 원리로 본다면 수평, 수직의 관계는 직각, 구형, 사각형, 또는 입방체의 기본 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형태들은 선에 의해 2차원의 평면으로 나타난다. 그리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망목(網目)에 의해 내재된 자연 질서를 그려내는 것으로 시각적 사고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적 물질을 표출해 내는 원리이다.¹³⁾ x축과 y축으로 조립되는 그리드는 바우하우스 조형예술에 흔히 이용된 구조적 형태다. 대립의 패턴으로 형성되는 정사각형 그리드는 ‘선 표현의 원형’으로 2차원적 공간의 다이어그램이다.¹⁴⁾



12) 그리드(Grid), 격자 형식의 무늬.

13) 김재관, 『‘그리드(Grid)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연구 - 서양회화의 사적 맥락과 그 해석을 중심으로 -, 홍익대 박사, 1996. 217면.

14) Wassily Kandinsky, 『점과 선에서 면으로』, 과학기술출판사, 1997, 101면.

이 시의 격자형 그리드는 대립의 패턴으로 형성된 정사각형 그리드이면서 확대된 시공간이 축소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1 2 3 4 5 6 7 8 9 0'이라는 숫자는 1에서 9까지 커지다가 0으로 축소된다. 수학에서 1에서 0으로의 축소는 확대된 물질이 압축되어 빨리 들어감을 뜻한다. 물리학적으로 볼 때 숫자의 확대는 차원의 확대를 의미함으로 그리드 형태의 형상은 압축되고 축소된 차원을 뜻한다. 이 시의 형상 묘사 밑에 서술된 시구는 원자에 대한 서술이다. 또 이 시의 조형적 형상은 원자 안에 무한한 차원이 압축되어 있음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⁶⁾

1 2 3 4 5 6 7 8 9 0 •
 1 2 3 4 5 6 7 8 9 • 0
 1 2 3 4 5 6 7 8 • 9 0
 1 2 3 4 5 6 7 • 8 9 0
 1 2 3 4 5 6 • 7 8 9 0
 1 2 3 4 5 • 6 7 8 9 0
 1 2 3 4 • 5 6 7 8 9 0
 1 2 3 • 4 5 6 7 8 9 0
 1 2 • 3 4 5 6 7 8 9 0
 1 • 2 3 4 5 6 7 8 9 0
 • 1 2 3 4 5 6 7 8 9 0

—「建築無限六面角體」診斷 0:1」中

「線에關한覺書1」의 형상과 달리 이 시의 조형 형상은 숫자와 점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다. 사각형의 숫자가 전체를 이룬 그리드로 가로 지른 대각선은 점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시의 조형적 형상은 시공간과 빛에 대한 가상적 입체로 '무한육면각체'이다. 대각선의 점을 따라 양쪽 숫자는 '1 2 3 4 5 6 7 8 9 0'이다. 그리고 그 선을 따라 '1 2 3 4 5 6 7 8 9 0'이 양편으로 나뉘어 배열되어 있다. 즉 점으로 이뤄진 대각선은 실재에서 무한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차원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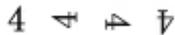
16) 윤수하, 『이상시의 상호매체성 연구』, 전북대 박사, 2009. 23면.

는 시공간의 확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시의 ‘患者의容態’는 죽음이고 입체가 해체됨과 동시에 무한한 시공간으로 환원되어짐을 의미한다. 인간의 입체를 이루는 원자는 1차원적 시공간에서 실재를 이루기 위해 운행하고 있으며 0차원에서 1차원적 공간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시의 조형적 형상은 1차원에서 0차원으로 확대가 진행되는 형상이다.

또 이 형상은 조선시대 정치가이자 수학자 崔錫鼎의 『九數略』에 나오는 ‘百子子數陰陽錯綜面’과 ‘百子母數陰陽錯綜面’과 유사하다.¹⁷⁾ 숫자로 인식되는 시공간의 차원은 인지되지 않지만 상상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무한한 시공간은 현상이 아닌 물자체이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인식도 신이나 영혼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실존하는 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뇌가 인식하는 것에 따라 시공간 또는 물자체의 존재 여부가 결정된다. 인간이 시공간을 감지하는 요소인 전자기 파동은 시공간을 결정하는 체제이다. 또 파동을 이루는 빛의 운동과 광자의 감각기능은 주요 요소가 된다.

『線에關한覺書1-7』에서는 전반적으로 빛, 즉 광선에 대해 강조한 부분이 많다. 특히 『線에關한覺書1』의 ‘永劫인永劫을살수있는것은生命은生도아니고命도아니고光線이라는것이다.’의 ‘永劫’, 즉 초월의 대상은 빛이다. 빛은 시각을 통해 형상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소요되어 인간 개개인의 입체가 자연적으로 해체되어도 영원 속에 생존하는 것은 시각이라고 가정한다. 또 『線에關한覺書7』에서는 그러한 시각의 영원성을 ‘視覺의이름은사람과같이永遠히살아야하는數字的인어떤一點’이라고 묘사한다.

數字的 方位學



數字的力學

時間性(通俗思考에依한歷史性)

17) 김용운, 『文化 속의 數學』, 현암사, 1974. 95면.

速度와座標와速度

$$\nabla + 4$$

$$4 + \nabla$$

$$4 + \nabla$$

$$\nabla + 4$$

etc

사람은靜力學의現象하지아니하는것과同一하는것의永遠한假說이다, 사람은 사람의客觀을버리라.

主觀의體系의收斂과收斂에依한凹렌즈.

4 第四世

4 一千九百三十一年九月十二日生.

4 陽子核으로서 陽子와陽子와의聯想과選擇.

原子構造로서의一切의運算의研究.

方位와構造式과質量으로서의數字의 性態性質에依한解答과解答의分類.

數字를代數의인것으로하는것에서數字를數字적인것으로하는것에서數字를數字인것으로하는것에서數字를數字인것으로하는것에(1 2 3 4 5 6 7 8 9 0의 疾患의究明과詩의人情緒의棄却處)

(數字의一切의性態數字의一切의性質이런것들에依한數字의語尾의活用に依한數字의消滅)

數式은光線과光線보다도빠르게달아나는사람과에依하여運算될것.

사람은별—天體—별 때문에犧牲을아끼는것은無意味하다, 별과별과의引力圈과引力圈과의相殺에依한加速度函數의變化의調査를于先作成할 것.

—「線에關한覺書6」

이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線에關한覺書1」와 연결된 부분이며 조형 형상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숫자는 시공간이나 물질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시에서 '4'라는 숫자는 위치를 나타내는 네 방위를 의미한다. 방위의 위치 변형은 자전 또는 공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4'라는 숫자가 회전을 하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힘에 의해 시간의 변이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만들어진 시간의 흐름과 역사는 '通俗思考에依한歷史性'이다. 그것은 인간의 통속적인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시간에 불구하다.

이 시에서는 방위에 대한 정립된 사고에서 벗어나 방위의 위치변화 또는 속도의 변이를 추구하고 있다. '速度와座標와速度'로 인해 방위는 변이를 일으킨다. 방위의 변이는 공간의 변이를 뜻한다. 변이된 공간의 위치로 인해 시간도 변화를 일으킨다.

시공간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靜力學', 즉 움직이지 않는 평행상태에서 모든 상태를 인지한다. 지구가 자전이나 공전을 하면서 일어나는 우주의 역학을 감지하는 상태가 아닌 움직이지 않는 평행상태에서 현상을 감지한다. 그 현상에 대해 인지하는 '사람'이 '現象하지아니하는것'과 그것을 '同一하는것'은 칸트의 가설에서 명시한 감각기관을 통해 형성되는 현상이 아닌 물자체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현상과 역사는 '永遠한假說'일뿐이다.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사람은사람의客觀을버리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칸트의 가설과 같이 철저한 '主觀의體系'을 갖춘 '收斂

과收敏에衣한凹렌즈'에 대해 표상한다. 그것은 '사람'의 주관적 의식을 끌어 모아서 새로운 시각의 틀인 '凹렌즈'를 갖추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원거리의 물체를 잘 볼 수 있는 '凹렌즈'는 '사람'처럼 가까운 곳은 잘 보지만 먼 곳은 보지 못하는 근시안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현상이 보여주는 현실세계가 아닌 물자체를 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第四世'와 '一千九百三十一年九月十二日生'은 성인이 아이의 형태로 변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미 사회화된 성인이 아닌 갓 태어난 아이의 시각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네 살에서 갓 태어난 아이로 빠르게 변화하며 또 다시 주관적 의식은 '사람'의 세포 내의 원자로 압축된다. 축소된 시각은 '陽子核'에서 '陽子와陽子'까지 압축된다. 원자 내의 양자핵, 그리고 양자는 '聯想과選擇'을 거쳐 '一切의運算의研究'대상이 된다.

이 시에서 원자는 시간의 흐름 또는 인간이 인식하는 역사가 아닌 물자체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 시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도구이다. 시의 화자는 물자체에 대한 인식의 도구로 원자와 양자핵 또는 양자와 양자의 내부를 선택한다. 원자 내부의 변이와 분석을 통해 물자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물자체의 인식은 '사람'이 인식하는 시공간이나 현상이 아닌 세상의 시초를 의미한다.

이 시의 화자는 '사람'의 가장 근원적 물질인 양자의 '方位와構造式과質量'으로서 數字의 性態性質'의 분류와 분석으로 '解答'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정리하는 방법으로써 숫자를 활용하는데 대한 의문이 '(1 2 3 4 5 6 7 8 9 0의 疾患의究明과詩的인情緒의棄却處)'이라는 시구에서 나타난다. 숫자 '1 2 3 4 5 6 7 8 9 0'은 확대되는 과정에서 '10'으로 나아가지 않고 '0'으로 돌아감을 통해 '0' 이외의 숫자를 압축 또는 흡수하게 된다. 좌표나 숫자의 진행으로 본다면 내부로의 축소를 의미한다. 그 과정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정신질환으로 여겨질 수 있고 그 과정을 시로 쓰는 일은 시적인 정서를 포함시킬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이 시가 시적 서정을 표현할 수 없음을 밝히고 그것은 '사람'의 일생이 이러한 숫자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람'은 시공간의 표상 뿐 아니라 신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변이에 의해 일생이 좌우된다. 그 모든 것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숫자에 의한 기준으로 정해진다. '數字의一切의性態數字의一

切의性質이런것들에依한數字의語尾의活用に依한數字의消滅이 진행된다. 사람의 신체를 비롯한 연관된 모든 것이 숫자의 단위로 정해진다. 그래서 사람의 변이과정도 숫자에 의해 측정된다. 그것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든 겪는 고통이다.

이 시에서는 현상이 아닌 물자체를 보는 방식으로 ‘光線과光線보다도빠르게달아나는사람’을 택한다. 이 시의 소재가 원자에서 우주로 옮겨가는 듯 보이는 것도 사람이 광선보다 빠르게 달아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선이 되어 ‘天體’의 운행을 본다는 것은 우주의 별을 관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자 내부의 양자를 본다는 것이다. 원자가 시공간을 거치면서 진행된 과정을 조사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물자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線에關한覺書1』에서 ‘고요하게나를電子의陽子로하라’는 시구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별때문에犧性을아끼는것은無意味’하다는 것은 『線에關한覺書1』의 ‘太古的事實’을 보기 위한 붕괴의 과정이다. 결국 ‘별의犧性’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 죽음을 통해 ‘별과별과의引力圈과引力圈과의相殺에依한加速度函數의變化’를 연구할 수 있다고 밝힌다.

칸트와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이론의 대전제는 현상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직 감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감각과 신경계에 의한 지각 기능은 빛의 주고받음, 즉 광자의 교환을 통해 일어남으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은 빛을 써서 오감으로 보는 것이라 전제하는 것이다.¹⁸⁾ 『線에關한覺書1』의 ‘嗅覺의味覺과味覺의嗅覺’은 그러한 감각과 신경계를 의미하며 『線에關한覺書1-7』를 통틀어 나타나는 ‘原子’와 ‘光線’의 의미는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보기 위해 원자 내부의 양전자의 시각을 획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3.2. 광선에 의한 시공간 이동

시간과 공간은 빛으로 인해 생겨나며 인간의 감각 또한 감각기관의 빛을 주고받는 현상으로 생겨난다. 그런 의미에서 빛에 대한 형상화는 『線에觀한覺書1-7』연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8) 소광섭, 앞의 글, 23면.

실제로 양전자는 과거에서 미래로 진행하는 양(+)에너지를 가진 양전자이며 (+)전하를 가진 입자로 반물질의 하나다. 반대로 전자는 음(-)에너지를 가졌으므로 미래에서 과거로 진행한다. 양자 시간에 대한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보면 '시간 0' 부분에서는 전자와 양전자가 나타나고 '시간 1'에서는 전자와 양자가 가까워지며 '시간 2'에서는 부딪혀 소멸되고 광자로 바뀌며 '시간 3'에서는 공간에 광자만 존재한다.¹⁹⁾

사람은光線보다도빠르게달아나면사람은光線을보는가, 사람은光線을본다, 年齡의眞空에있어서두번結婚한다, 세번結婚하는가, 사람은光線보다도빠르게달아나라.

未來로달아나서過去를본다, 過去로달아나서未來를보는가, 未來로달아나는것은過去로달아나는것과同一한것도아니고未來로달아나는것이過去로달아나는것이다. 擴大하는宇宙를憂慮하는자여, 過去에살으라, 光線보다도빠르게未來로달아나라.

사람은다시한번나를맞이한다, 사람은보다젊은나에게적어도相逢한다, 사람은세번나를맞이한다, 사람은젊은나에게적어도相逢한다, 사람은適宜하게기다리라, 그리고파우스트를즐기거라, 메퀴스트는나에게있는것도아니고나이다.

速度를調節하는날사람은나를모은다, 無數한나는말(譚)하지아니한다, 無數한過去를傾聽하는現在를過去로하는것은不遠間이다, 자꾸만反復되는過去, 無數한過去를傾聽하는無數한過去, 現在는오직過去만을印刷하고過去는現在와一致하는것은그것들의複數의境遇에있어서도區別될수없는것이다.

聯想은處女로하라, 過去를現在로알라, 사람은옛것을새것으로이는도다, 健忘이여, 永遠한忘却은忘却을모두求한다.

19) 다케우치 가오루, 앞의 책, 128~129면. 실제로 파인만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진 것은 1945년이다. 이상이 이 시를 쓴 시점은 1931년이므로 이상이 파인만보다 14년을 앞서 양전자와 광자에 대한 이론을 정리한 셈이다. 파인만 다이어그램과 흡사한 이상의 시간에 대한 다이어그램은 「線에關한覺書2」와 「線에關한覺書3」을 통해 나타난다.

來到할나는그때문에無意識中에사람에一致하고사람보다도빠르게나는달아난다, 새로운未來는새로옴게있다, 사람은빠르게달아난다, 사람은光線을드디어先行하고未來에있어서過去를待期한다, 于先사람은하나의나를맞이하라, 사람은全等形에있어서나를죽이라.

사람은 全等形의體操의技術을習得하라, 不然이라면사람은過去の나의破片을如何히할것인가.

思考의破片을反芻하라, 不然이라면새로운것은不完全이다, 聯想을죽이라, 하나를아는者は셋을아는것을하나를아는것의다음으로하는것을그만두어라, 하나를아는것은다음의하나의것을아는것을하는것을잇게하라.

사람은한거번에한번을달아나라, 最大限달아나라, 사람은두번分娩되기前에 × × 되기前에祖上의祖上의祖上의星雲의星雲의星雲의太初를未來에있어서보는 두려움으로하여 사람은빠르게달아나는것을留保한다, 사람은달아난다, 빠르게 달아나서永遠에살고過去를애무하고過去로부터다시過去에산다, 童心이여, 童心이여, 充足될수없는永遠의童心이여.

—「線에關한覺書7」

상대성이론은 광속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더디거나 일시 정지한다는 것을 입증했다.²⁰⁾ 시의 화자는 ‘光線보다도빠르게달아나면사람은光線을보는가’라고 질문하고 ‘사람은光線을본다’고 스스로 답한다. 광선보다 빨리 달아나 과거를 볼 수 있다는 이치는 곧 과거에서 현재로 회귀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무의미해서 ‘年齡의眞空’상태가 된다. 즉 결혼했던 시점으로 회귀를 반복하면 ‘두번結婚’하고 ‘세번結婚’하기도 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세번結婚’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동안 같은 결혼을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됨을 말한다. 그 시점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사는 것과 현재를 사는 것, 그리고 젊은 내가 미래로 가는 것을 말한다. 세 번의 시점에 각기 같은 ‘나’가 서있다. ‘나’는 정해진 시간의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광선보다 빠르게 시공간 이동을 하는 ‘나’는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다. ‘擴大하는宇宙’는 시공간의 확대로 인한 우주의 확대를 의미한다. 그

20) 광속일정의 원리, 특수상대성이론의 원리.

러나 ‘사람’이 일정하게 일어나는 사건에 순서를 매기고 인식하는 것은 마음 속에 시간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²¹⁾ 공간은 인식주관의 상상물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계산과 예측으로 설정된 우주공간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의 우려와 달리 시공간을 이동하는 존재인 ‘나’는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세번나’를 맞이하고 상봉한다. ‘파우스트’는 현실을 즐기는 인간을 뜻하고 ‘메피스트’는 그것을 시험하는 악마를 뜻한다. 현실의 쾌락을 좇는 파우스트와 달리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회의를 갖는 존재인 메피스토펠레스는 현재를 살지 않고 시공간을 떠돌며 시험을 내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역시 시공간을 이동하는 존재인 ‘나’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반복하는 ‘나’는 ‘無數한’ 존재이지만 자꾸 반복되는 시공간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못한다. ‘複數의境遇에있어서도區別’될 수 없어서 ‘사람’은 ‘옛것을새것으로’ 알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공간에 대한 ‘忘却’을 반복한다.

이 시에서는 ‘사람’과 ‘나’가 병행해서 등장한다. ‘사람’은 객관적인 인간을 뜻하고 ‘나’는 주관적인 인간을 뜻한다. 그래서 ‘나’는 무의식중에 일정한 시공간의 ‘사람’에 일치하기도 한다. 그것은 시공간을 이동하는 존재인 ‘나’가 ‘사람’이었고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또 다시 광선과 같이 빠르게 달아나고 ‘未來에있어서過去’를 기대하기도 한다. 시의 화자는 ‘사람’이 하나의 ‘나’를 완성하기를 권유한다. 그 하나의 ‘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사는 객관적인 인간이 아닌 주관적인 ‘나’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畚形’의 객관적인 ‘사람’인 또 다른 ‘나’를 죽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것은 자아와 연관성이 있다. ‘體操의技術’이란 달아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시의 ‘달아남’이란 달리기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사고의 변형을 요하는 것이므로 변형의 기술을 익히라는 것이다. 과거의 파편들은 기억 속에 남아 있고 ‘나’는 시간을 통틀어 초월하는 자아이다. ‘思考의破片’들은 없애야 할 것들이며 과거, 현재, 미래의 생에 대해 ‘聯想’하는 일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로지 광선이 지니는 시각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21) A. Einstein, 『물리 이야기』, 지동섭 역, 한울, 1994. 259면.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의 주관적인 면에서 칸트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하나를아는것은다음의하나의것을아는것을하는것을있게’하는 것이다.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생에서 ‘사람’의 생이란 의미가 없으므로 ‘사람’으로서 쾌락이나 좋은 기억들조차 모두 망각하고 하나의 ‘나’로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한꺼번에한번을’ 달아나고 한번에 ‘最大限’ 달아나야 하며 ‘사람은두번分婉되기前’에 달아나야 한다. 그래서 시공간이 뒤섞인 ‘太初를未來’를 보게 되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시공간을 이동하는 일에 두려움을 갖고 유보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현생을 희생한 다음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영원한 생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사람은 그러한 실험적인 일에 자신을 투척하는 일을 거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을 초월하고자 하는 마음은 실험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童心’에 비유할 수 있는 일이다. ‘永遠’을 살고자 하는 ‘童心’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무의미하고 우매한 일일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시공간은 현상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인식 주관의 선천적 형식이다. 상대론적 시공간은 물질 분포와 관측자의 운동, 위치, 시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그러므로 상대론적 시공간은 경험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²²⁾ 이 시는 주관적인 경험에 따른 상대적 시공간의 이동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주관적인 상상력을 동원했다. 이는 과학적으로 실험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현상을 인정할 때 초월의 세계인 물자체의 영역이 있다는 것에 반론을 제시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시의 강조하는 부분은 생이 소멸됨에 따라 존재와 존재했던 시공간이 소멸된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희망적인 추론이다.

<線에關한覺書 1-7>의 ‘線’은 운행함을 의미하며 그 운행은 ‘光線’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신체를 버리고 영원의 세계로 나아가는 짧은 찰나는 광자화되는 순간을 뜻한다. <線에關한覺書 1-7>에서 신체가 소멸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소멸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소멸됨으로써 새롭게 탄생하는 시각의 존재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됨을 의미한다. 우주 만물과 시공은 존재의 생멸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생존해 있는 인간은 사후

22) 박윤향, 앞의 글, 99면.

에 재생될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흔적 없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린다. 그것은 인간을 절망과 존재에 대한 회의에 빠뜨린다.

이상 시는 우주에 대한 형태를 그려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점과 선, 입체를 비롯한 숫자가 주는 상징은 만물의 조형 이치와 연관되어 있으며 우주와 시공에 대한 사고는 형태화되어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線에關한覺書 1-7>의 조형 형태는 과학 이론에서 원리를 창출해냈지만 형태에 대한 철학적 사유는 이상의 생에 대한 주제의식에서 비롯된다. 또 그것은 <線에關한覺書 1-7>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상 시 전편을 지배하고 실존에 대한 회의와 갈등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4. 결론

이 논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과 그에게 영향을 준 칸트의 상대적 시공간이론을 중심으로 『線에關한覺書1-7』의 시공간에 대한 주제를 비교 분석했다.

그동안 이상 시에 쓰인 형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 수학과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른 분석 또는 영향을 고려한 분석을 내놓았으나 어떤 연유에서 그러한 사고를 하게 되었는지 규명하기에 난점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문학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한 이상의 과학적 사고와 과학이나 수학 분야에서 짐작해 내지 못한 문맥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먼저 시공간 이론의 근거가 되었던 철학적 사유를 살펴보았다. 그 일환으로 칸트의 시공간 이론에 대해 검토했다. 칸트의 시공간 이론은 물리학적 시공간이론과 우주에 대한 폭넓은 관점의 시초를 제공했다. 인간의 생멸과 시공간 또는 우주의 운행에 대한 물음은 이상 시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음을 확인한다. 그것은 자연에 순응해 소멸되는 인간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고 영원한 초월의 방법으로 시공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모색하는 이상의 철학적 성찰이 시의 주제로 쓰였다는 점이 새로웠다. 이 외 이상 시에 운용된 조형 형상과 여러 과학적 성찰에 대한 이해는 다음 연구로 미루겠다.

〈참고문헌〉

- 곽윤희, 『칸트 입장에서 본 상대론적 시공간』, 『대동철학』 제2집.
권영민, 『타이포그래피의 공간과 시적 상상력』, 『세계의 문학』, 민음사, 2008.
4월호
고위공, 『복합예술텍스트로서의 구체시』, 『동서문화연구』10호, 2002.
김민수, 『멀티미디어 인간, 이상은 이렇게 말했다』, 생각의 나무, 1999.
김용섭, 『이상 시의 건축공간화』, 『이상리뷰』1, 역락, 2001.
김용운, 『文化 속의 數學』, 현암사, 1974.
김종년, 『이상전집』, 가람기획, 2004
김주현 주해, 『정보 이상문학전집』1, 소명, 2005.
김주현 주해, 『정보 이상문학전집』2, 소명, 2005.
김주현 주해, 『정보 이상문학전집』3, 소명, 2005.
김태화, 『2분법 사고에서 3분법으로』, 『이상리뷰』1, 역락, 2001.
김태화, 『수리철학으로 바라보는, 이상의 춤과 이미지』, 교우사, 2002.
소광섭,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고찰』, 『과학사상』10, 범양사, 1994.
서정욱,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읽기』, 세창미디어, 2012.
안상수, 『이상 시의 타이포그래피 놀이』, 『이상리뷰』4, 역락, 2005.
이승훈, 『이상문학전집』, 문학사상사, 1989.
이어령, 『이상시전작집』, 갑인, 1977.
임종국, 『이상전집』, 태성사, 1956.
장석원, 『李箱시의 과학과 多聲性-『선에관한각서』연작을 중심으로』, 『이상리뷰』3, 역락, 2004.
A. Einstein, 『물리 이야기』, 지동섭 역, 한울, 1994.
Immanuel Kant,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05.
J. Hillis Miller, Illustr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erd University Press, 1992.

【국문초록】

지금까지 이상 시의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문학적 인 이해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경우고 둘째는 시 작품에 적용된 매체의 다양성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이다. 물론 전자와 후자 모두 이상 시에 형상화된 시 정신을 밝히는 데 주안점이 있다. 전자는 본격적인 의미에서 이상의 문학 세계를 분석하고 문학적 의의를 규정했던 반면, 이상 시에 내재한 비문학적인 요소들에 대해 해명하고 난해성을 설명하는 데 일정 부분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대두된 것이 후자이다.

후자의 경우, 본격 문학적 분석이 아우르지 못한 비문학적 요소들을 시적 소재로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으로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해석의 폭과 깊이를 더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비문학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상의 작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학적 혹은 시적 맥락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 시에는 여러 예술 사조와 사상, 과학과 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매체가 응용되어 있다. 이러한 이상의 문학적 경향은 작품의 소재를 선별하는 데 있어 문학적 감각의 재료에 한정하지 않고 이질적인 매체의 이론과 특성을 광범위하게 다루어 문학적 형상의 질료로 유입했음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이상 시에 적용된 광범위한 예술과 과학철학 중 시공간과 우주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상대성이론과 칸트의 시공간 이론 등을 비교 분석해 이상 시의 조형적 형상과 어떻게 접목되었는지를 명시했다. 먼저 당시 거론된 시공간 이론을 검토하고 그 중 칸트의 시공간 이론의 주제와 이상 시의 주제의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제어 : 시공간 형상, 칸트, 우주, 원자, 이상 시.

【Abstracts】

A Study on Space-time's Shape in Yi Sang's Poetry

Yoon, Suha

A wide variety of media ranging from art trends and thoughts to science and mathematics are applied in Yi Sang's poetry. This tendency originates with the medium-incorporative characteristics of Yi Sang's poetry that gives life to the the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sparate media without being limited to the literary material in dealing with the works.

This paper aimed to reveal the philosophical awareness of the time and space and the universe out of a wide range of art and science philosophy applied to Yi Sang's poetry. In particular, the theory of relativity and Kant's theory of time and space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o determine how they were grafted onto the formative shape of Yi Sang's poetry.

Key words : Space-time's shape, Kant, The Universe, Atom, Yi Sang's poetry

이 논문은 2013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7월 2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3년 8월 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